

<오늘의 꽃이 피었습니다>

주제 : 청년세대 과소비 예방

로그라인 : 주하는 자신의 가방이 쓰레기로 보이기 시작한다.

주하 : 24세, 여성.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며 자수, 공예 등이 취미. 주관이 없으며, 귀가 얇은 편이다.

소영 : 24세, 여성. 주하의 대학 동기. 인턴십을 나가면서 받은 첫 월급으로 명품백을 장만함. 그 가방을 애지중지 아낀다.

유민 : 24세, 여성. 주하의 대학 동기. 백화점에서 알바를 하며, 명품에 대한 환상이 있음.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영, 유민, 주하. 둘과 주하가 다른 점이 있다면 둘은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주하는 꽃 자수가 박힌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

그런 둘이 주하의 가방을 보며 명품백 얘기를 하자 주하는 어느 순간 자신의 에코백이 분홍색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보이기 시작한다.

카페에서 나서는 주하는 자신의 가방을 숨기며 돌아다닌다.

한숨을 돌리며 한적한 버스정류장에 앉은 순간, 옆자리의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주하. 할머니는 웃으며 주하의 가방을 가리킨다. 그러자 주하는 습관처럼 자신의 가방을 가리려 한다. 그때 할머니가 “가방에도 꽃이 피었네요.”라고 말하자 무지 에코백에 직접 자수를 놓는 순간을 회상하는 주하.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간 뒤 주하는 자신의 가방에 새겨진 꽃 자수를 매만진다.

S#1. 카페, IN, D

여유로운 주말 오후 카페, 주하, 소영, 유민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 그때 소영이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자 유민이 눈을 반짝이며 소영의 가방을 가르킨다.

유민

뭐야? 김소영 가방 새로 샀어?

소영

(가방을 정리하다 뿌듯하게 웃으며 애지중지 쓰담는다.) 아~ 이번에 회사 다니면서 하나 장만했지. 팀원들 다 명품 메고 다니더라니까? 기죽어서 원...

유민

아 부러워~ 회사원 되면 다들 하나씩 사더라. 그 뭐였지? 그런 말도 있잖아. 그 사람이 입과 걸친 것에서 품격이 드러난다는...

음료를 마시던 주하가 초조하게 둘의 대화를 듣고있다가 결국 사례에 들려 기침을 한다. 소영과 유민의 시선이 주하에게 집중되자 주하는 제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가린다. 부스럭, 소리가 들려 주하가 고개를 내리면 자신의 가방이 종량제 봉투로 변해있다. 자신의 가방(쓰레기 봉투)을 보고 눈이 커진 주하.

소영

(휴지를 내밀며) 너 괜찮아?

주하

아, 어어 나 괜찮아! 이만 가봐야겠다. 다음에 또 보자!

이내 주하가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카페에서 나온다.

S#2. 길거리, OUT, D

부스럭거리는 쓰레기봉투 소리가 신경쓰이는 주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한다. 가방을 안고 움츠린 자세로 한적한 길을 걷는 주하.

S#3. 버스정류장, OUT, D

지친 표정으로 한적한 버스정류소 벤치에 기대는 앉는 주하. 지긋한 시선이 느껴지자 고개를 돌린다. 주하를 바라보고 있던 할머니는 웃으며 주하의 가방을 가리킨다. 그러자 주하는 습관처럼 자신의 가방을 가리려 한다.

할머니

가방에도 꽃이 피었네요.

그 말에 자신의 가방을 보는 주하.

(플래시백) S#4. 주하의 집, IN, D

밴드를 붙인 손으로 에코백에 자수를 놓고 있는 주하. 예쁜 꽃 모양이 완성되면 가방을 매만진다. 가방을 보며 주하가 뿌듯하게 웃는다.

(현재) S#5. 버스정류장, OUT, D

그때 버스가 도착한다.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사라지고 혼자 남게 된 주하. 그때처럼 자신의 가방에 새겨진 꽃 자수를 매만지며 웃는 주하.